

# 한은 “향후 지역경기 개선될 듯”

## ‘지역경제보고서’ “서비스업·내수 중심 개선 움직임… 김영란법 등 제약 요인”

지난 7~8월 국내 지역경기 개선 속도가 다소 완만해진 가운데, 향후 서비스업과 내수를 중심으로 미약하게나마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예외규정법률)이 향후 지역 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29일 각 지역본부에서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관찰 지역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수록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수도권과 제주권이 2분기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여타 권역에서 모두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앞으로 지역경제는 서비스업·내수를 중심으로 미약하나마 개선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제조업은 보합 수준을 지속하겠지만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가 보합 수준을 나타내는 가운데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수출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지만, 그 정도는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업 주춤·서비스업 소폭 증가  
조사기간 제조업생산은 보합 수준에 머물렀으나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생산이 소폭 늘었다.

제조업생산의 경우 정보기술(IT), 석유화학 등은 늘어난 반면, 자동차와 조선 등이 각각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종료, 수출 부진 등으로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과 동남권에서 자동차와 조선을 중심으로 부진했다.

앞으로도 제조업생산은 당분간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은 신규수주 부진,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감소하고, 자동차 역시 해외 수요 위축 등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의 경우 중국 철강 시장 상황의 호전에도 조선업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반도체는 낸드플래시 및 모바일 D램의 안정적 수요 등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은 갤럭시노트7 등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애플 등 해외 업체의 수요 확대, 북미지역의 연방



‘퀵텀 모니터는 이런거’ 삼성전자는 오는 9월 2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16에서 24형과 27형 CFG70, 34형 CF791 등 퀵텀 커브드 모니터 3종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TV에 적용 중인 퀵텀 디스플레이 기술을 모니터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CFG70 모니터.

특수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업생산의 경우 수도권, 제주권 등에서 관광관련 서비스업이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생산은 7~8월 국내의 관광객 수 증가 등에 힘입어 2분기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앞으로도 서비스업생산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대규모 할인행사 개최 등으로 관광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 김영란법 시행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서비스업생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출 부진·소비 보합… 김영란법 우려  
7~8월 소비와 설비투자가 보합 수준, 건설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종료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줄었으나 고온효과, 올림픽 효과 등으로 에어컨·TV 등 가전제품 판매가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권역에서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설비투자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소극적인 투자기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디스플레이 업체를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수도권, 강원권 및 제주권에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소폭 늘었다.

그러나 수출은 제주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수출품목의 부진으로 감소했다. 앞으로 소비와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설비투자가 보합 수준을 나타내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수출 부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소비는 자동차·휴대폰 신제품 출시,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수도권, 대경권, 제주권 등에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

이라며 “다만 지방 주택가격 하락,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이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수출의 경우 IT제품 생산비중이 높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등을 중심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7월 취업자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0만명 늘어나 2분기(월평균 29만명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늘었다. /뉴시스

## 2분기 산업대출 전분기비 1.2% 늘어

부동산 임대업 5.7조 ↑  
건설업 대출 6000억 ↓

올해 2분기 산업 대출규모가 970조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대출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고, 제조업 대출도 다소 주춤해지긴 했지만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건설업 대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 대출은 970조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1조6000억원(1.2%)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대출이 1조2000억원 늘어 전분기(4조8000억원)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나 상승세를 유지했

다. 서비스업 역시 10조2000억원 늘어 전분기(10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증가세는 이어갔다. 다만 건설업 대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분기 건설업 대출은 6000억원 줄어 전분기(1조1000억원) 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제조업은 음식료품 금속가공제품·기계장비(9000억원), 기타(1조1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됐고,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5조7000억원),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3조7000억원)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자금융도별로는 운전자금은 전분기와 동일, 시설자금은 11조7000억원 늘면서 전분기(7조8000억원)보다 증가했다. 산업대출금 대비 시설자금 비율은 38.5%로 증가했다. /뉴시스

## KB국민카드 ‘한가위 위시 페스티벌’

내달 18일까지 응모·일정액 이용시 경품·할인

KB국민카드는 추석을 맞아 경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2016 한가위 위시 페스티벌’ 이벤트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 18일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벤트 존에서 행사에 응모하고 일정 금액 이상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농·수협직판장에서 20만원 이상 쓰면 추첨을 통해 1006명에게 기프트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준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전통 시장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하면 1061명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다음달 12일부터 18일까지 외식업종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지불금액의 일정액을 돌려주거나 치킨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준다.

아울러 30만원 이상 쓴 고객이 추석 연휴가 긴 다음달 12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KB국민 하이패스카드나 후불교통카드 결제하면 1만명을 추첨해 안마의자와 갤럭시노트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서 KB국민카드(KB국민 비씨카드, KB국민 선불카드 제외)로 추석 선물세트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이용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해당 마트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행사 대상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품목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뉴시스

## 美금리인상 고개…증시 조정 ‘떡구름’

유동성 잔치 끝난 듯…증평가, 금리 인상 시기는 9월 vs 12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고, 조정 장세에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이번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금리 인상 시기로 9월과 12월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어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9월 기준금리 인상과 연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 모두에 그렇다고 한 것”이라고 옐런 의장의 발언을 추가 해석했다.

29일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 이슈는 신중국 통화 약세를 야기하고, 글로벌 유동성 이탈을 자극하는 변수”라며 “지난주 외국인 은 7주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고, 신중국 상장지수펀드(ETF)에서 10주 만에 자금이 이탈하는 등 이번주 미국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주도해 왔던 외국인 비차익 매수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코스피의 하락 변수를 자극하는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며 “외국인의 유동성 이탈, 차익

실현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승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도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은 당분간 높아질 것”이라며 “이는 미국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측했다.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9월과 12월을 놓고 증권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서둘러 않을 것이며 재정정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공조 차원에서 저금리기조를 쉽게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9월보다는 12월에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향후 미 금리정책에 인플레이션 보다는 고용이 관건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8월 고용이 9월 인상을 좌우할 것이라고 시사했다”며 “8월 비농업취업자가 전월비 20만명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한 12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은 9월이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미 고용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면 9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